

대학에서의 전공영어강의 수강 경험,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경험, 고3 때의 특성, 대학에서의 영어전용 전공강좌 수강경험, 진로결정 유형과 고용상태와의 관계 탐색

Relationships among Students' 3rd Year High School Characteristics, College English-mediated Subject Courses, Career Decision Type, and Employment Status

박혜숙
호남대학교

Hye-Sook Park(parkhyes@honam.ac.kr)

요약

본고는 한국교육고용 패널(KEEP) 1차 및 7차 자료를 이용하여 212명의 고3 때의 특성(수능성취도 포함), 대학 재학 중 영어전용 전공강좌 수강경험, 취업 실패(7차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영어 수업 수강 여부, 영어전용 수업이해도를 예측하는데 사용된 고3 변수인 직업결정여부, 영어사교육경험여부, 영어흥미, 수능영어성취도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없었다. 대학에서의 경험(해외여행, 교수멘토링, 수업태도, 영어 공부시간)은 영어전용 전공강좌 선택과 관련이 없었으나, 영어전용 전공과목 수업이해도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영어강의 수업이해도는 영어강의 수강회수와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수업의 유용성과 수업이해도는 교수의 영어사용빈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진로결정유형(취업, 대학원진학/ 유학, 기타)과 영어전용 전공과목 수강여부와는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수업이해도와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영어전용 수업경험과 고용상태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중심어 : 전공과목 | 영어수업 | 수업 이해도 | 영어사용 비율 | 진로결정 | 고용상태 |

Abstract

Using the 1st and 7th waves of KEEP(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s among 212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during high school, experience of taking English-mediated subject courses(EMSC) during college, career decision types, and employment status. These students' high school experiences and college experiences were used to predict the log-odds of taking and the understanding EMSC.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none of high school characteristics such as career decision, English private education experience, interest in English, and their scholastic aptitude test score in English were associated with taking and understanding EMSC. Among college experience variables, only female students' level of understanding English subject cours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the understanding the EMSC and the number of the EMSC taken and also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the EMSC and perceived usefulness of the EMSC. There was als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areer types (continuing with graduate studies vs. working) and taking EMSC,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types and understanding the EMSC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taking EMSC and employment statu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keyword : | English-mediated Subject Courses | Scholastic Aptitude Test | Career Decision | Employment Status |

* 제7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접수일자 : 2014년 01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5월 26일

수정일자 : 2014년 05월 13일

교신저자 : 박혜숙, e-mail : parkhyes@honam.ac.kr

1. 도입

우리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월 청년실업율은 7.4%로 전체 실업률 3.4%이었으나, 2012년 7.5% (전체 실업율은 2.8%)로써 청년 실업율은 증가추세다[1].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노령화 및 생산성 저하, 국민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2]. 또한 청년들의 초기 노동시장의 경험 부재는 향후 생애경로에 걸쳐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문제가 심각하다[3]. 이런 이유로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주로 대졸 청년실업 문제에 모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도 주로 대졸 청년 실업의 해결을 목표로 두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 취업률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19위, 2012)는 외형적 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원인들 중의 하나를 고등교육의 경쟁력 미흡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4]. 지식정보화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은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 습득 및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식창출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의 양성과 이들의 산업체 현장에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5]. 고급인력의 양성은 국가 경쟁력이 원천이라는 점과 특히 고급인력의 양성은 대학의 질적 제고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발전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4].

그러나 1980년대 이래 대학졸업자가 과잉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국내 대학이 양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크다고 한다[6]. 특히 박순애(2010)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글로벌 역량의 경우 사기업체가 요구하는 역량수준 중에서 가장 미흡하다[6].

한편 미국산학협회조사에서 나타난 기업이 요구하는 개인적 특성 중에는 특정기술, 분석력을 포함하여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팀워크, 대화능력, 작문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4].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대졸 인력 역량 간의 수준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요구 수준에 가장 근접한 전문 지식 이외의 대부분의 역량이

기업의 요구 수준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 중에서도 특히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량들의 수준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글로벌 시대에 타인과의 협력을 통한 활발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언어사용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편은 영어사용 능력의 제고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여러 대학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인재육성을 위해 국제화 방안을 모색 및 개발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수업에 있어서 영어강의의 확대이다[7-9].

영어 실력이 필수자질로 간주되어져 많은 투자가 행해지는 이유는 영어 실력이 높은 경우 노동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높은 임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박성재와 반성호(2006)에 의하면 영어성적은 임금보상이나 높은 일자리로 진입할 확률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10]. 그러나 최형재와 김진영의 연구(2008)는 수능성적을 통제한 경우나 다른 도구변수를 사용할 경우, 영어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영어 성취도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으나[3], 대학 재학 중의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강좌 수강경험이 취업 및 진로결정과 관계의 관계를 국가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글로벌 역량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영어를 사용하여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강경험과 수업이해도가 고등학교 때의 수능성취도를 포함한 고등학교의 경험과의 관련성 여부, 대학 때의 경험과의 관련성 여부 및 전공영어 수업이해도가 진로결정타입과 고용상태(정규직 vs. 비정규직)와의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련문헌 연구

1. 취업결정요소로의 영어 실력

영어는 취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학생이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서 특히 세계화시대의 하나의 필수능력이

되었다[12]. 이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하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취업대책을 위한 주 방법 중의 하나가 영어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13].

우리나라에서 영어 능력(English proficiency)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의 일부로 인식이 되고 있다. 국제화 및 세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영어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보수도 증가하고 있다[3].

취업성공에 미치는 연구들은 성별, 성적, 전공, 자격증, 대학 재학 중의 취업준비노력, 일경험, 대학지명도, 출신대학의 소재지 외에 수능성취도와 영어능력이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4].

최필선과 민민식의 연구(2013)에 의하면, 수능성취도가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15]. 특히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성취도가 상승되면, 임금비율증가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취도가 높은 경우, 대학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대학지명도가 높은 대학은 고용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학점, 재학 중 취업준비, 외국어능력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영어 성취도와 취업준비는 높은 임금과 관련이 있다는 박성제와 반정호(2006) 및 임천순과 양병무, (2006)가 있다[16].

영어 실력 향상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때의 전공과목 영어강좌 수강 경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년 때의 경험 및 수능 영어 성취도가 대학 재학 시 영어 전용 전공과목 수강 경험여부와 취업상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영어 수업

국제화 및 세계화 시대에 잘 준비된 인력을 육성하고자 대학에서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개방화에 대비하고 특히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국제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단순한 교양영어/실용영어 차원을 벗어나 전공 교과를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을 도입하였다. 국내 대학에서는

그 중의 하나가 내용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업운영을 강화하게 되었다. 영어를 사용한 전공강좌(English-mediated subject courses/ English medium courses)는 언어와 전공지식을 가르치는 이중의 효과를 동일한 수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학행정가들이 의도한 것과 달리 영어전용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동일한 교과목이 영어와 한국어로 개설되었을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는 수강생의 부족으로 인하여 폐강의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17]. 또한 교수가 영어를 100%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아서 한국어와 영어를 병행하여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수업이해를 도모하고자 영어전용 전공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는 수업 전후와 수업시간 중간을 이용하여 한국어로 수업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학생들의 낮은 영어 실력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영어 전용 강좌를 수강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은 가능하면 해당 강좌 수강을 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국내의 여러 대학에 나타났다[18][19].

영어로 운영되는 전공과목 수업은 제2언어 습득 연구에 의하면, '학문목적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 EAP)' 혹은 '내용기반교육(Content-Based Instruction; CBI)'과 관련이 있다.

Jordan(1997)에 의하면 학문목적영어(EAP)는 각급 교육현장에서 학습목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 된다[20].

학문목적영어(EAP)는 '일반학문목적영어(English for General Academic Purpose: EGAP)'와 '특수학문목적영어(English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s; ESAP)'로 나눌 수 있다. 일반학문목적영어는 수업 중 듣기 및 노트정리, 학습전략, 시험전략, 세미나, 토론활동에 해당되며, '특수학문목적영어'는 의학, 공학, 경제학과 같은 특정분야에 관련된 언어학습 등이 있다.

한편, 교수의 초점이 의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에서 CBI는 현재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와도 관련이 있다. '내용기반언어학습(Content-Based Language

Learning)’도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이기
에 전공 혹은 내용, 즉 과학, 수학, 사회과학 등의 학습
과 관련이 있다[21].

한국인이 전공강좌를 영어로 수업하는 것
(English-Mediated Instruction 혹은 English medium
instruction)은 내용기반교수(Content-Based Instruction;
CBI)와 관련이 있으나 CBI는 원어민이 가르치는 것인
반면, EMSC 혹은 EMI는 원어민이 아닌 사람이 내용
관련 교수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르며 CBI에서는 ‘형
식(Form)’이 아닌 ‘내용(Content)’이 강조되지만 교수목
표는 언어습득 자체가 되는 반면,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영어 수업(English-mediated Instruction; EMI)은 언어
습득/학습이 주 교수목표가 아니고, 관련분야의 지식습
득이 교수 및 학습의 주목적이 된다고 하겠다[18].

인지학문적언어능숙도(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도 언어 역할이 인지 및 내용학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어로 개설된 영어전용 전
공수업과 관련이 있다. Gass(1999)는 언어능숙도와 내
용이해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2
언어에 대한 어원이 같고 충분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22].

Cummins(1979, 1980)에 의하면[23][24], ‘기본적인 대
인간 의사소통능력(Basic Interpersonal Language
Skills; BICS)’은 이민해 온 아동의 경우 1-2년 기간 안
에 습득이 가능하나, 보통의 경우 ‘인지학문적 언어능숙
도(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는 대상 제2 외국어에 몰입된 환경에서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수학기제를 푸는 경우 약 5-7년의 세
월이 걸린다고 한다[25]. 비록 대학입학 이전까지 최소
6년 동안 영어교육에 노출되었으나, 국내의 많은 대학
생들의 영어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개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에 대
한 능숙도에 따라 내용 지식습득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17][18][26]. 지역소
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성은과
황성수(2013)의 연구에서는 영어 능력별로 강의 만족도
가 다르며, 영어 능력이 높을수록 수강 후 영어 실력에
대한 향상이 높고 만족도가 더 높았다[26]. 강의 이해도

에 있어서 영어 능력이 상위인 그룹의 수업이해도가
80% 이상인 경우가 학생의 70%인 반면, 영어 능력이
하위인 그룹은 학생 36%만이 80% 이상의 내용을 이해
한다고 대답하였다[26]. 또한 수강 후 영어능숙도 항상
도 능력에 따라 다르기에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수강한다고 해서 영어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는 것
은 아니며,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의 준비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18][26].

국제사회에서 교육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용기반 언어교육은 학생들의 언어습득 및 언어 학습
능력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27], 영어로 진행되는 전
공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KAIST,
POSTECH, 고려대, 이대, 서울대, 연세대를 포함하여
국내 여러 대학에서는 내용과 언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얻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능력개발을 위한 실
용영어(혹 일반영어) 강의뿐만 아니라, 특정 전공 분야
의 지식 습득과 더불어 학생들의 영어 능숙도를 향상시
키기 위하여 전공강좌를 영어(특수학문목적영어;
ESAP)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 대상은 단순히 영어
자체가 수업목적이 아닌 전공분야의 내용을 영어로 배
우는 특수학문목적영어로 분류될 수 있는 전공영어강
좌 수강경험과 고용상태와의 관련성도 탐색하고자 한
다.

그동안 전공 영어강좌 수업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17-19], 전국표본을 사용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강경험과 취업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공강좌 영어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
징과 전공 영어강좌 수강 경험 여부가 노동시장 이행
(취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전공 영어강좌 수강여부와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대학에서 영어로 운영되는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어떠한가?

(1.1) 성별, 고3 때의 사교육경험, 미래진로결정여부,
영어 사교육경험여부, 영어흥미도 및 고3 수능
외국어(영어 표준점수)가 영어 전공과목의 수
강여부와 관계가 있는가 ?

- (1.2) 성별, 고3 때의 사교육경험, 미래진로결정여부, 영어 사교육경험여부, 영어흥미도 및 고3 수능 외국어(표준점수)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1.3) 성별 및 대학 재학 중 해외여행경험여부, 교수의 멘토링, 수업태도 및 공부시간은 영어수업을 선택 할 가능성과 영어 수업이해도에 관련이 있는가?
- 2) 영어전용 전공 수업 경험과 진로결정유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1) 영어전용 전공 수업 경험은 진로결정유형(취업, 진학, 기타)과 관련이 있는가?
 - (2.2) 영어전용 전공 수업 경험과 수업이해도가 취업 상태(정규직 vs. 비정규직)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7차 연도 설문조사에 나타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전용강좌의 경험관련 문항에 대답한 212명이다. 이들은 2010년 8월 및 2011년 2월 졸업 예정자이다. 대상자 중 남자가 112명(52.8%)이고 여학생, 100명(42.7%)이다. 영어수업을 직접 경험한 경우는 136명(64.2%)이며, 과목이 개설되었으나 수강하지 않은 경우가 76명(35.8%)으로 구성되었다.

2. 분석방법

연구문제 1은 영어 전용 전공과목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수업에 대한 경험유무에 관하여 응답을 한 경우를 먼저 분석하였다.

전공 영어강좌를 수강여부와 수업 이해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그들의 고3 때의 특성 즉, 영어흥미도(좋아함, 잘 할수 있음), 미래직업결정여부, 고3 때의 영어사교육경험 여부를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별도로 얻어진 고3 수능성취도 표준점수를 사용하였다.

변수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신뢰도 및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로짓회기모형, 다중회기모형, 상관관계,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하나의 구인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문항을 한 문항으로 만들고자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해당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수업태도, 유용성(수업만족도), 대학에서의 다양한 교수방법 및 교수멘토링을 이용한 수업경험정도(다양한 교수방법) 등 이었다. 또한 진로결정, 정규직 취업여부가 영어전용수업참여 여부와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코딩하였다.

전공 영어강좌 수강과 관련된 대학 때의 경험은 7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영어수업에서의 언어에 대한 코딩은 ① 영어를 전적으로 사용함, ② 영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한국어는 부분적으로 사용함, ③ 영어와 한국어 반반사용 ④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는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 코딩 되었다. 또한 대학에서는 수업태도, 수업유용성(만족도), 교수멘토링을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5점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성분으로 간주된 문항들의 평균을 사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IV. 결과

본 연구 참여자 중 실제 영어로 진행된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전국의 다양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었다. 서울(32.4%), 5개의 광역시(24.3%), 지역대학(42.6%) 및 외국소재 대학(0.74%)에 소속하고 있었다.

수강과목 수는 평균, 3.5개였으며, 영어수업의 유용성은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2.95). 수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보통 이상이었으나(3.51), 실제 수업에서는 영어 사용은 영어를 위주로 약간의 한국어를 사용한 경우가 평균적인 추세였다[표 1].

표 1.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업 관련 변수 특성

변수	N	M	SD	왜도	첨도
EMSC 수강경험	136	1	0	.	.
EMSC 수강과목수	134	3.50	4.32	3.52	15.23
EMSC 유용성	136	2.95	1.02	-0.11	-0.47
교수영어*	136	1.83	0.98	0.93	-0.25
EMSC 이해수준	136	3.51	1.10	-0.22	-0.78

주) *영어사용 비율은 낮은 문항번호가 영어만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1) 영어로만 진행, 2) 영어를 주로 하고 한국어를 부분적으로 사용, 3) 영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 4) 한국어를 주로 하고 영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함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영어수업을 선택할 가능성과 학교에서의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해당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여 생성한 변수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표 2. 학교 및 수업경험 관련 문항특성

변수	문항특성	문항수	알파
수업태도	출석	5	0.71
	복습		
	예습		
	과제		
	강의집중		
긍정적 태도(고3)	영어_흥미있다	2	0.74
	영어_잘한다		
교수멘토링	학업	3	0.83
	진로		
	기타		

다음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1)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경험과 전공과목 영어전용 수업 수강, 이해도, 유용성(만족도)와의 관계 우선적으로 대학에서의 영어전용 전공강좌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문에 참여한 212명 중 전공과목을 영어로 수강하는 학생은 136명(64.2%)에 해당되었고, 이들 중 성차에 따른 수강할 가능성(log-odd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업이해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으나, 수업에 대한 유용성에 나타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표 3.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과목 수업이해도와 유용성

변수	성별	N	Mean	SD	p
수업이해도수준	여	68	1.95	.87	0.00
	남	68	1.50	.65	
EMSC유용성	여	68	3.01	1.06	0.28
	남	69	2.88	0.99	

성별을 통제된 후의 고3 시절에 조사한 미래직업결정 여부, 영어 사교육경험 여부, 영어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영어 수능성적(표준점수)은 전공과목 영어강의 수강여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다[표 4].

표 4. 고등학교 경험이 대학에서의 전공영어 수업을 수강할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변수	b	S.E.	p	Exp(b)
성별	-.242	2.513	.923	.785
미래직업결정고3	3.309	3.274	.312	27.347
영사교육경험고3	2.072	1.461	.156	7.938
영어흥미_고3	-3.370	2.045	.099	.034
수능05_표준점수	.078	.060	.194	1.081
상수항	4.367	4.291	.309	78.812

주) 성별은 남학생은 1로 코딩, 여학생은 0으로 코딩하였다. 남학생 효과를 나타냄.

고3 때의 사교육경험, 영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흥미 및 잘할 수 있음), 미래진로결정여부, 영어사교육 경험 여부 및 고3 수능외국어(표준점수)의 효과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강좌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모든 변수, 즉 고3 시절의 미래직업결정여부, 영어교과 사교육경험여부, 영어교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수능영어성취도는 전공과목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다[표 5].

표 5. 고등학교 경험이 대학에서의 영어전용 전공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효과

변수	b	S.E.	Beta(β)	t	p
(상수)	.821	1.373		.598	.582
성별	-.486	.853	-.173	-.570	.599
미래직업결정고3	-.475	1.294	-.148	-.367	.732
영사교육경험고3	-.553	.914	-.211	-.605	.578
영어흥미_고3	.751	.758	.514	.991	.378
수능05_표준점수	.030	.038	.345	.799	.469

다음은 대학에서의 수업 중 교수의 영어사용 비율, 학습 이해도, 영어수업 유용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 결과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수강회수와 수업이해도는 정적인 상관관계($r=0.29$)를 나타냈다.

교수의 영어사용수준과 수업이해도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실제 코딩은 ① 영어를 전적으로 사용함, ② 영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한국어는 부분적으로 사용함, ③ 영어와 한국어를 반반사용 ④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는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 코딩이 되어 있기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수업이해도는 높았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유용성에 관하여는 수강과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수업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영어로 운영되는 전공강좌 수업 특성에 대한 상관

변수	1)	2)	3)	4)
1)강좌수	1.00	0.36 **	-0.24 **	0.29 **
2)유용성	0.36 **	1.00	-0.22 **	0.37 **
3)영사용%	-0.24 **	-0.22 *	1.00	-0.20
4)이해도	0.29 **	0.37 **	-0.20 *	1.00

주) 영어사용 비율은 낮은 문항번호가 수업 중 영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대학시절의 전공영어강의 수강 가능성에 미치는 성별, 해외여행 경험, 지도교수와와의 관계(멘토링 효과), 그리고 수업태도 및 자율공부시간과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7].

표 7. 대학에서의 경험과 영어전용 전공강좌 수강 가능성과의 관계

변수	b	S.E	p	Exp(b)
성별	-0.19	0.46	0.69	0.83
해외경험	-1.52	1.13	0.18	0.22
교수멘토링	-0.17	0.22	0.44	0.84
수업태도	0.40	0.43	0.35	1.49
영어공부시간	-0.04	0.03	0.24	0.96
상수	-1.62	1.60	0.31	0.20

영어전용 전공과목 선택 가능성과는 달리 영어전용 전공과목 수업이해에 있어서 대학재학 중 경험, 즉 해

외경험 여부, 지도교수의 멘토링, 수업태도, 자율 영어 공부시간 등의 변인 중 성별의 효과($b=-0.71$; $\beta=-0.3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여학생의 수업이해도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았다. 한편 지도 교수의 멘토링이 높을수록 전공영어강의에 대한 이해도($b=0.21$)가 높았으나($p=0.06$), 0.05 유의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표 8].

표 8. 대학에서의 경험이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강좌 수업이해도에 미치는 효과

변수	b	SE	β	t	p
상수	2.68	0.74		3.62	0.00
성별	-0.71	0.24	-0.35	-2.89	0.01
해외경험	0.21	0.39	0.06	0.54	0.59
멘토링	0.21	0.11	0.23	1.95	0.06
수업태도	0.34	0.20	0.20	1.73	0.09
공부시간	-0.01	0.01	-0.08	-0.73	0.47

2) 영어전용 전공강좌 수업 경험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미치는 효과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강좌 수강경험 여부와 진로결정타입(취업, 대학원진학/유학, 기타)과의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결정타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진학(대학원 및 유학)결정, 기타 그룹 경우가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을 수강할 확률이 취업그룹보다 더 높았다[표 9]. 그러나 영어전용 전공강좌 수업이해도와 진로결정유형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0].

표 9.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 수강여부와 진로결정유형(취업, 대학원진학, 유학)과의 관계

진로종류	빈도	수강안함	수강함	전체
취업&가업계승	빈도	72	105	177
	기대빈도	64.4	112.6	177.0
대학원진학&유학	빈도	2	16	18
	기대빈도	6.6	11.4	18.0
군입대&기타	빈도	1	10	11
	기대빈도	4.0	7.0	11.0
전체	빈도	75	131	206
	기대빈도	75.0	131.0	206.0

주) $\chi^2=0.025$

표 10. 진로결정유형(취업, 대학원진학, 유학)과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강좌 수업이해도와의 관계

소스	제 III 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수정 모형	1.853	2	.927	.747	.476
절편	693.152	1	693.152	558.379	.000
취업계획3	1.853	2	.927	.747	.476
오차	158.895	128	1.241		
합계	1769.000	131			
수정 합계	160.748	130			

취업상태(정규직 vs. 비정규직)를 예측하는 것 관련하여, 취업을 한 경우는 55명(남자=22명, 여자=33명)이었다. 실제 전공과목 영어수강 경험여부와 임금을 받고 일하는 현재 취업상태인 경우를 대상자(n=43)로 직장에서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살펴본 것이다. 정규직 고용가능성에 관련하여 전공영어수업 경험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1].

표 11. 영어전용 전공수업 수강경험과 고용상태와의 관계

전공영어 강좌		비수강	수강	전체
비정규직	사례수	10	12	22
	기대값	9.72	12.277	22
정규직	사례	9	12	21
	기대값	9.28	11.723	21
Total	전체	19	24	43

주) $\chi^2=0.864$

또한 영어 수능성취도가 고용상태 즉 정규직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수능성취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12].

표 12. 고용상태에 미치는 수능성취도

변수	b	SE	유의확률	Exp(b)
수능05_표준점수	-.002	.013	.878	.998
상수항	-.372	.782	.634	.689

또한 실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n=136) 중 현재 취업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영어강의를 수강한 경험자를 대상(n=34)으로 과거 영어로 운영되는 전공수업이해도가 그들의 고용상태(정규직 여부)를 예측하는 지를 살

펴본 결과, 전공과목 영어로 진행된 수업이해도가 정규직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3].

표 13. 고용상태에 미치는 전공영어 수업이해도

변수	b	SE	p	Exp(b)
수업이해도	0.06	0.34	0.86	1.06
상수	-0.20	1.26	0.87	0.82

V. 논의

글로벌 시대의 인재육성을 위해 추진된 전공과목에 대한 영어강좌가 점차 확대하여 개설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가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효과를 본 경우는 드물다. 전국 대학생이 표본이나 2010년에 조사된 7차 자료를 사용하여 영어전용 전공과목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212명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고등학교 경험 및 대학 경험 관련 변인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 선택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강좌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수업이해도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업이해도가 높았다. 또한 비록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교수멘토링에 나타난 교수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수업이해도는 높았다.

최형재, 김진영(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영어 실력이 높은 사람은 높은 임금을 받는 것과 관련은 있지만, 수능백분위 점수를 통제한 경우나, 도구변수법을 사용한 경우, 영어 실력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11]. 본 연구에서도 영어전용 전공과목 수업이해도와 취업상태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대학시절의 경험관련 변인 및 수능영어성취도가 영어전용 전공수업이해도에 미치는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영어강의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학습자가 수업을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은 Krashen(1985)의 이해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이론과 연결지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 한국인 학생들에게 이해 가능한 수업

언어는 한국어이기에 한국어를 사용한 수업이 학습이 해에 더 효과적이다. 영어 전용 전공과목 수업에서처럼 교수/수업 언어(instructional language)로서 영어로만 가르칠 경우, 학습자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이유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유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학생들의 불평이 있었다[19][28]. 조성은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영어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는 학습자의 영어능숙도가 높은 경우, 더 높았으며, 영어능숙도 향상도 능력에 따라 다르기에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수강한다고 해서 영어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에 영어 전용 수업이 효과가 있도록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영어 수능성취도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이해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영어 수강 경험과 수업이해도가 취업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26].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업이해도가 높았으나, 대학재학 중의 경험인 해외경험, 수업태도, 자율공부시간은 영어전용 수업이해도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비록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교수의 멘토링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업태도가 높을수록 수업이해도는 높았다는 점에서 교수 역할의 중요성과 학습자의 수업태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영어 전용강좌에서 수업이해 수준은 영어강의 수강횟수, 교수의 영어사용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수업의 유용성과의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어서 각 대학에서 100% 영어를 사용한 영어전용수업 실시에 관한 정책시행 차원에서는 고무적이다[11]. 영어능숙도 향상은 학습자의 수업 전 영어 능숙도에 따라 다르기에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수강한다고 해서 영어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영어강의에 대한 학생의 준비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영어전용 강좌 수강경험과 정규직상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고용패널 자료 설문조사는 7월에서 12에 걸쳐 실시되기에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는 연구대상자이어서 사례수가 적은 이유가 통계적인 유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영어전용 강좌 수강을 의무적으로 실시한 국내 한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영어실력 때문에 영어전용 수업에서의 수업내용 이해도가 낮아진다는 이유로 효과적인 100% 영어전용수업을 정착을 위하여 해당 대학에서는 수업 전, 후, 쉬는 시간 및 학생 상담시간(office hour)에서는 교수-학생들이 우리말을 사용하게 허락하였다[17][19]. 즉, 수업 중에는 영어로만 수업을 운영하지만, 수업이외의 시간 즉 연장된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교수는 수업 내용을 우리말로 다시 요약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런 한국식 보호수업(sheltered instruction)은 학습자의 수업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17],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교수의 영어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수업의 유용성과 더불어 수업이해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영어전용수업 시행 정착의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세부적인 전공영역, 교수의 영어능숙도 및 교수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심도 있는 탐색은 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례수가 적은 이유로도 기인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영어수업 경험과 수업이해도가 고용상태(정규직)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교과 수능성취도를 사용했지만, 수능성취도는 취업 및 정규직여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아니었다.

사례수의 보강이 예측되는 추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이해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진로결정 및 고용상태와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종단연구를 시행해 볼 것이다.

참고 문헌

- [1] 오계택, 김영생,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페이퍼2, pp.1-20, 2013.
- [2] 유일, 김소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대학졸업 예정자들의 구직의도 영향요인 및 인과구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13권, 제11호, pp.198-212,

- 2013.
- [3] 김진영, 최형제,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이전과정에서 영어의 역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pp.1-33, 2010.
- [4] 서병우,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만족도의 이론연구", 취업진로연구, 제1권, 제2호, pp.69-90, 2011.
- [5] 홍병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대안 모색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합교과목 개발", 교양교육연구, 제3권, 제2호, pp.51-78, 2009.
- [6] 박순애, "인재수요에 부응하는 역량중심의 대학 교육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행정, 제20권, 제3호, pp.171-197, 2010.
- [7] 강순희, 서혁, 신상근, 이종원, 이현주, 최진영, "사범대학 영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교과교육학연구, 제11권, 제2호, pp.637-656, 2007.
- [8] 김현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II): 주요 대학들의 국제화 실태와 발전과제", 한국교육논단, 제10권, 제3호, pp.21-39, 2011.
- [9] 송영수, "대학 영어전용강좌(EMI)의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CIPP 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4권, 제3호, pp.61-84, 2008.
- [10] 박성재, 반정호,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pp.29-50, 2006.
- [11] 최형제, 김진영,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영어 실력의 프리미엄", 노동경제논집, 제32권, 제2호, pp.61-93, 2009.
- [12] 오성록, "취업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현대영어문학, 제27권, 제1호, pp.193-209, 2009.
- [13] 송윤현, "대학생의 경력준비행동", 경영경제연구, 제23권, 제1호, pp.113-133, 2000.
- [14] 임천순, 유진봉, "대학 졸업생의 채용결정요인 분석: 서비스업업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제22권, 제4호, pp.311-332, 2004.
- [15] 최필선, 민인식,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영어 실력의 프리미엄", 노동경제논집, 제32권, 제2호, pp.61-93, 2013.
- [16] 임천순, 양병무,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4권, 제3호, pp.1-26, 2006.
- [17] 박혜숙, "공과대학에서의 전공 영어강의 효과. 영어교육연구", 제33권, pp.89-119, 2006.
- [18] S. Kang and H. Park, "English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in Korean Engineeri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Vol.21, No.1, pp.155-174, 2005.
- [19] 박혜숙, "강의언어가 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제37권, 제3호, pp.319-337, 2006.
- [20] R. R. Jorda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A guide and resource book for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21] S. D. Krashen,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1982.
- [22] S. Gass, "Integrating research areas: A framework for second language studies," Applied Linguistics, Vol.9, pp.198-217, 1988.
- [23] J. Cummins, "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linguistic interdependence, the optimal age question and some other matter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Vol.19, pp.197-205, 1979.
- [24] J. Cummins, "The cross-lingual dimensions of language proficiency: Implications for bilingual education and the optimal age issue," TESOL Quarterly, Vol.14, pp.175-187, 1980.
- [25] V. P. Collier, "Age and rate of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for academic purposes," TESOL Quarterly, Vol.21, pp.617-641, 1987.
- [26] 조성은, 황성수, "대학교 전공과목 영어강의 현황 파악 및 미래 방향 탐색: 영어능력차이에 따른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제71권, pp.175-194, 2013.

[27] J. A. Crandall (Ed.), ESL through content-area instruction: Mathematics, science, social stud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Regents, 1987.

[28] S. D. Krashen,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U.S.A: Laredo Publishing Co. Inc., 1985.

저 자 소 개

박 혜 숙(Hye-Sook Park)

정회원



- 1999년 5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 교육심리)
- 2007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관심분야> : 학습동기, 읽기발달, 문항반응, 다문화 수용성